佛法 담은 현대미술로 마음 닦는다

김지선 화가 초대전 '부처님 오신날'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갤러리 까루나

불교 바탕한 현대미술 구현
전통기법 활용한 추상적 회화
한국적 차분함 · 세련미 공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우수상


김지선_부처님오신날 #5_acrylic on canvas 77×33 2019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오늘날에서 '불화(佛畫)'의 범위를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내용과 형식 모두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에서도 불화는 새롭게 시도되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미술의 불화 전시가 열린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내 갤러리 까루나는 화가 김지선 초대전 '부처님 오신날'을 개최한다. 불교를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을 추구하고 있는 김 작가의 그림은 전통적인 색과 기법을 활용해 한국적인 차분함과 세련미가 공존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17점의 그림들은 작가 자신과 관객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불화는 불교회화의 줄임말이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또 그 안에서 주제와 소재 등 여러 가지로 나뉜다. 분명한 것은 그림 속에 '불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지선 화가의 그림은 분명 불화라고 할 수 있다.

김 작가의 그림 속엔 길이 있고, 그 끝에는 일주문이 있다. 그 길과 일주문은 형식이면서 내용이다. 길이라는 시각 속에는 시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정'이 숨어있다. 그 과정을 달리 부르면 사유와 성찰, 수행, 질문 등이다. 김 작가의 그림을 불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림 속에 불교가 있기 때문이다. 길과 일주문을 비롯해 모든 사물은 추상화되어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 역시 '불교'다. 그리고 그것이 김지선이 그림 속에 불교를 풀어놓는 방식이다. 부처의 법을 그림으로 옮기는 언어다. 언어를 끊어내는 공안의 무궁무진한 길처럼 그의 그림 속 길에는 천 가지 만 가지의 과정이 지나간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예술은 평범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치의 방향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 과거의 작품들이 거대한 사회담론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냈다면 현대의 작품들은 외롭고 소외된, 그리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인간의 감정을 그려낸다. 이런 변화는 소재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더 넓은 소통의 장을 열어주었다. 누구나 재미있고 특이한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재로 만들어 내는 이는 예술가들이다. 김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그림들은 작품 속에서 부처님과 한바탕 신나게 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들이라고 한다. 그림 속에는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 같은 '길'이 그려져 있다. 작가가 시작한 길이지만 그 길은 관객 모두의 길이다. 그 길 끝에는 일주문이 있다. 일주문 역시 각자의 것이다. 그림을 그린 작가를 표현한 것이고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을 그렸다. 일주문은 한마음을 상징한다. 세속의 번뇌를 말끔히 씻고 한마음 속에 머물고자 함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길의 표현은 불도(佛道)다. 불도는 부처님의 말씀이면서 수행자의 길이다. 현대는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지고 자아의 표현이 적극적인 시대이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마음을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한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이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각자의 삶을 깊게 성찰해보기를 바란다.

"어릴 적부터 불가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이 지금의 그림이 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그림을 통해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기왕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 속에 부처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가 그린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불교가 친숙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했던 김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김 작가의 그림은 또 다른 경전 해설서인지도 모르겠다.

김지선(34) 화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미술과 과정 중에 있다. 2017년 527창작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개인전 3회,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9년 경인미술대전에서 수상했으며, 갤러리 이즈 신진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선정작가로 선정됐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BAF청년작가공모전에서 청년작가 공모전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불교철학을 현대미술과 접목시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02)6012-1731.

공감의 대상 반려식물이 주는 위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초록으로~'展
12월 20일까지 탑골미술관


갖가지 식물과 소품을 활용해 각자가 꿈꿔오던 정원을 '미니 정원'으로 구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2월 20일까지 탑골미술관에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 '초록으로 물들다 나도 당신도'를 개최한다.

2019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어르신 25명이 지난 2개월간 함께한 반려식물과 반려식물을 기르며 쓴 글들을 선보인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기관으로 지난 10월부터 2019 서울농부회원 지원사업 '서울선배시민, 반려식물과 함께 춤을'을 진행해왔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반려식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글쓰기 강연을 통해 기르고 관리하는 대상이었던 식물을, 공감의 대상으로서의 식물인 '반려식물'로 의미를 전환했다. 또한 큰 화분에 갖가지 식물과 소품을 활용해 각자가 꿈꿔오던 정원을 '미니 정원'으로 구현했다. 어르신들은 "얘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거기에 화답해서 뭐라고 화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매일 들여다보고 만져가면서 돌보다보니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기르는 법을 배우고 정성을 들여 키우니 애틋한 정이 생겼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니정원, 반려식물, 공감일기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반려식물이 가진 긍정적 효과와 의미를 전할 뿐 아니라 식물을 활용해 실내를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군간 애정과 공감이 형성되고, 그런 존재 자체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기도 한다"며 "어르신이 직접 가꾼 반려식물과 이를 바라보며 작성한 공감일기를 통해 그 특별함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찬불가 · 캐럴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

12월 23일 홍대 에반스 라운지서
비뮤티 · 김창기 등 찬불가 · 캐럴 공연

BTN불교라디오 '울림'(대표이사 구본일)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콘서트를 마련했다.

BTN불교라디오 대표프로그램 '송봉주의 음악풍경'은 12월 23일 홍대 에반스 라운지에서 '부디스트 온 크리스마스(Buddhist on Christmas)'라는 주제로 특집콘서트를 개최한다.

음악을 통해 종교와 세대 등의 분별을 없애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콘서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가수인 김창기(동물원), 송봉주(자전거 탄 풍경)와 찬불가수로도 알려진 비뮤티(클래시컬 팝 아티스트)가 무대에 선다.

이들은 아름다운 찬불가와 크리스마스 캐럴, 자신들의 주요 히트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손님으로 초대된 진명 스님(BTN라디오 '아름다운세상, 진명입니다' 진행자)의 깜짝 스페셜 무대도 진행된다.

찬불가와 캐롤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 BTN불교라디오 송년특집 '부디스트 온 크리스마스' 공연은 하나티켓에서 예매가능하다. 가격은 3만원. 문의 1577-1233, (02)3270-3465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